

大學施設의 計劃과 投資

南 廷 杰
(檀國大 特殊教育科)

I. 序 論

현대사회를 조직사회라고 하거니와 조직은 반드시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어 설립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나름대로의 固有한 機能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한 계속 유지·발전한다. 大學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다.

근대화 이전까지 한국의 대학, 즉 고구려의 太學과 扁堂, 신라의 國學, 고려의 國子監, 朝鮮朝의 成均館 등은 귀족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관리 양성의 기능을 주로 함으로써 전통사회의 신분제도를 유지·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들 전통적 대학은 19세기말의 近代化와 더불어 도입된 서구식 학제에 밀려 그 기능을 상실케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中世 이래 발전된 서구식 대학의 모형대로 학문의 研究와 教授의 기능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美國式 大學의 기능인 社會奉仕라는 세 기능을 사명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하겠다. 教育法에 의하면 대학은 국가와 민주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精緻한 응용방법을 教授·研究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대학은 이와 같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계획적으로 교수와 학생을 핵으로 하는 필요한 人的 資源과 校地와 校舍, 체육장, 도서관, 기타 부속시설 및 설비 등의 物的 資源을 要件으로 설립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物的 資源을 大學의 施設이라고 한다.

오늘날 시설 없는 교육은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연구 기능과 그 연구의 결과를 교수하여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大學施設이라는 지원 체계가 필수불가결하다. 대학의 質을 향상시켜 고도의 문화를 창조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면 대학의 인적 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종래 대학교육의 논의에서는 언제나 施設의 문제는 外面했던 것이니, 大學施設의 落後性, 따라서 高等教育의 質의 低下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학이 그 존립의 正當性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사회가 기대하는 良質의 인재를 공급하려면 대학이 研究와 教育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응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적선을 주조로 한 단조로운 건물이 뿔뿔히 들어선 캠퍼스, 外樣만 번지르르한 校舍, 정면 벽에 고정되어 있는 낡은 칠판과 그 앞에 놓여 있는 보기 흉한 교탁 하나, 그리고 노트 한 권 제

대로 띄우기 힘든 결상만이 통로조차 남기지 않고 출지어 놓여 있는 正方形의 대형 강의실의 풍경은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한국 대학교육의 성격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傳達媒體(medium)가 傳達內容(message)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施設은 敎育內容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媒體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敎育內容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그 교육의 성격까지 규정하게 된다.

本稿에서는 첫째 대학시설의 施工에 앞서 설계도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시설계획을 함에 있어서 준거해야 할 일반적 원칙 또는 기준을 제시하고, 둘째 大學敎育費 가운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시설투자의 실체를 고찰하기로 하겠다.

II. 大學의 施設計劃

우리나라의 대학시설은 첫째, 일제시대나 해방 직후 불과 몇백 명이나 몇천 명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발족하였다가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급격히 증대하는 대학인구를 수용하기에 급급하여 이렇다할 시설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 제한된 공간에 수용 위주로 무질서하게 건물을 증축한 캠퍼스가 있고, 둘째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애초부터 현대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발족한 신설대학이나 또는 기존 대학이 이전하는 경우, 세계 기존 캠퍼스를 본교로 삼고 새로운 부지에 제 2 캠퍼스를 分校로 새로 조성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대학은 自律 또는 自治를 경영의 제 1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 면에 있어서는 각 大學 나름의 獨自性을 띠고 있어 대학시설을 유형화하여 일률적으로 논의하기 힘들다. 둘째와 세계의 경우도 명세화된 종합계획이 없는 대학에서부터 기존 캠퍼스에 대한 立地·地形·高度·土木·空間·造景, 기타 설비에 대한 철저한 分析을 토대로 새로운 캠퍼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대학이 위치한 도시권의 상세한 분석에서부터 學事計劃과 財政計劃과의

장기적 關係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 평가 계획까지 갖추고 있는 대학도 있다.

대학의 시설계획이야말로 학교 시설계획 가운데 가장 독자적이고 전문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대학 경영자와 총·학장, 교수와 학생, 재정 담당자, 건축가를 포함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된 시설계획을 위한 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施設의 計劃은 흔히 建築의 施工에 앞서 새로운 施設에 대한 必要性的 검토와 양과 질에 대한 조사·연구 및 敎育示方書(educational specifications)의 작성, 재정 계획, 부지의 선정, 건축계획과 설계도의 작성까지를 포괄하는 단계로 본다.

물론 시설계획은 기존 시설의 변형이나 확장이냐 또는 새로운 시설의 건설이냐에 따라 5년, 10년 이상 中·長期에 걸치는 종합계획이냐 또는 단기에 완성되는 특정 시설의 계획이냐에 따라 시설계획의 각 局面은 다양한 特徵을 갖게 된다. 이들 구체적 사항을 고찰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일반적으로 대학의 시설계획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 또는 기준을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大學의 敎育計劃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 대학의 창학 이념과 목적, 이를 구체화할 교육조직과 조직별 교육 프로그램, 이를 지원할 기구와 조직의 활동 등을 具體化하여야 한다. 계획이란 반드시 '무엇을 위한' 계획이다. 학교의 건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나, 호텔, 관청, 공장과 다른 獨自性을 지닌다. 동일한 캠퍼스 내에서도 강의실과 실험실, 연구실, 도서관 등이 각기의 독자성을 지니는 것은 이들 시설 안에서 이루어질 활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건축가 퍼킨스(L.B. Perkins)는 교육 시설의 특징은 技師의 재간이나 건축가의 상상력이 아니며, 또한 교육행정가의 꿈도 아니고, 학교 건축의 특색과 설계는 교육활동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코오딜(Caudill)은 敎育과 학교 건축은 時·空을 같이 해야 하는데 건축은 文明을 반영하고 校舍는 그가 수용하는 교육과정의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들은 교육시설과 교육활동과의 관계를 잘 말해 주고 있다.¹⁾

둘째, 教育的 適合性 또는 機能性を 시설의 계획에서는 우선시하여야 한다.

건축가가 아무리 훌륭한 설계에 의해 기술적으로 결함이 없는 시설을 완공했다 하더라도 첫째에서 언급한 목적과 교육활동에 부적절하다면 그 시설은 타당성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교육활동과 시설과의 乖離를 없애려면 설계에 앞서 건축가에게 시설의 종류와 수량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질 교육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文書로 진술한 教育示方書를 전달하여야 한다.

교육시방서는 필요한 교육 공간만을 열거하는 매우 간단한 것도 있고, 추구하는 목표를 충분히 설명하고 수용할 기능을 열거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서술할 뿐 아니라 그들 相互間의 관계를 기술하는 종합적이고 상성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교육시방서의 작성에는 그 시설을 활용하게 될 교수와 학생, 기타 관련 전문 인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교육시방서대로 시설 설계가 되었는지를 검토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절차는 대학당국자나 건축가에게는 귀찮고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교육시설이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길이 된다.

셋째, 대학시설은 어느 단계의 학교시설보다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사회변동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와 같은 動的 社會에서 대학은 이미 고고한 상아탑적 존재가 아니라 항상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대학교육 자체와 방법이 항상 변화하고 있으므로 시설 또한 이와 같은 변화에 對應할 수 있는 융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教授工學의 발달에 따른 기제 도입을 위한 강의실 내부의 시설 배치에 융통성이 요구되고, 둘째는 학과의 크기에 따른 다양한 교수공간이 요구된다. 예컨대 A대학교의 문과대학은 학년별 학과 졸업정원이 30명, 40명, 60명, 80명, 90명, 100명이고 상경대학은 50명, 80명, 150명, 160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B대학교의 人文大學 학과별 졸업정원은 20명, 30명, 50명, 60명, 80명이고 社會科學大學은 30명,

40명, 90명, 170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C대학교의 14개 대학 105개 학과 가운데 77.1%에 해당하는 81개 학과가 졸업정원이 학년당 40명으로 가장 많다. 따라서 대학의 강의실도 20명, 40명, 60명, 80명, 100명, 120명, 1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건물 안에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간별 공간 점유율을 합리화하여 낭비가 없도록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한 학과를 分班하거나 수개 학과를 合班하여 수업이 가능하도록 강의실의 벽을 움직일 수 있게 장치하여 교수공간의 고정적 분리를 탈피토록 하여 그때 그때 사용 목적과 수용 인원수에 대비하는 융통성을 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네째, 大學設施의 計劃은 미래에 대한 擴張性을 고려치 않으면 안 된다.

해방 후 가장 급격한 量的 成長을 가져온 분야가 고등교육 분야이다. 이는 일제 식민지하에 가장 억압당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분야가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 분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8.15 해방 당시 남한에는 경성제국대학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문학교나 각종 학교뿐이었는데 19개 학교에 학생수가 불과 7천 8백여 명뿐이었던 것이, 1983년에 428개교에 학생수가 1백 73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불과 4년만에 대학생 수가 182% 증가하였으며 전문대학과 교육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교)의 학생증가율은 거의 200%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高等教育의 人口는 상당기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이처럼 급격히 증대하는 학생인구에 행·제정 및 시설이 상응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단위 대학(교)의 차원에서 교육시설에 擴充計劃을 장기적 안목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의 확충은 비단 학생 인구의 증대뿐만 아니라 유전자공학이나 전자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학과의 신설과 기초과학의 연구 발전에 따른 연구 기능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학시설은 계속 확대될 것을

〈表 1〉 대학 학생수 증가 추세

(단위 : 명)

구분 \ 연도	'80	'81	'82	'83	'84
대 학(교)	402,979	535,876	661,125	772,907	802,165
전문대학	151,199	188,700	211,404	216,210	210,181
교육대학	9,425	10,320	11,205	12,004	14,320
계	563,603	734,900	883,734	1,001,121	1,026,666
'80년 대비증가율(%)	100	130	157	178	182

〈자료〉 문교부시선통계, 업무현황(1984.9), p.7.

예상하여 계획해야 한다.

다섯째, 주어진 재정적 조건하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시설이 되도록 전문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시설의 계획에서 經濟性이란 최초의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비용을 절약한다고 하여 값싼 설계와 조잡한 자재로 수명이 짧고 유지, 관리 및 보수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시설이 된다면 非經濟的일 뿐 아니라 그런 시설에서의 교육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다. 정당하고 충분한 비용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보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는 교육시설이라야 경제적이다.

여기에는 장기적인 시설계획에 따른 재정계획과 장차의 유지관리가 최소로 드는 자재의 適時 구입과 사용, 새로운 工法의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양심적인 施工者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설의 소요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과 利用率의 提高 역시 중요시된다.

여섯째, 대학시설은 아름답고 명량한 생활 환경이 되도록 美觀性, 安全性, 편리성이 보장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대학은 大學인이 교수와 연구, 학습 및 집무하는 場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生活의 場이며 地域社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條件이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 사무직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대학에서 생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학업에 정진하는 곳이 대학이므로 이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생

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教授와 研究를 보조하는 부대시설 이외에 각종 후생 복지시설이 필요하고,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自足的인 生活共同體(self-sufficient community)로서 기능하기에 부족이 없어야 한다. 대학시설이 물리적인 면에서 구조의 안정성은 물론 음향의 조절, 적절한 채광과 조명, 난방과 냉방시설, 위생적인 설비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충분한 휴식공간의 배치, 학내 모든 시설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 그리고 모든 시설과 설비에 미관성 내지는 예술성의 배려 등으로 정서적인 면에서 윤택하고 안정감을 얻고 심미감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대학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文化센터로서, 國民들의 平生教育의 場으로서 活用度를 높이고 社會에 奉仕한다는 대학 기능의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일곱째, 대학시설의 계획은 현행 實定法上的의 기준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대학시설의 관계 법령으로는 교육법, 교육법 시행령, 국립학교설치기준령, 사립학교법, 대학설치기준령, 전문대학설치기준령, 기타 건축관계 법규 등이 있는데, 대학시설의 기본법령은 대학설치기준령이다.

대학설치기준령은 1955년도에 제정돼,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던 것을 83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 4511호로 개정공포하여 그동안 교육 여건의 변화와 도시공간의 제약성, 특히 졸업정원제에 따른 과대한 수용시설에 대

한 과도한 투자 등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였다.

신 기준령의 내용을 보면 종래 校地의 기준 면적은 그 구내에 건축되는 校舎 종면적의 5배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준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분지 1의 범위 안에서 기준 면적을 감축할 수 있게 했다.

校舎의 기준 면적도 과거에는 학과별로 산정 하되 학생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는 교사 시설을 증대토록 하였던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학생 증원에 반드시 비례시켜 증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新基準令에서는 校舎의 기준 면적을 어문계열, 사회·인문·사범(인문)계열, 농학계열, 이학·약학·사범(자연)계열, 공학·수산·해양계열, 예·체능·사범(예·체능)계열, 의학계열·교육계열(교육대학 및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학과) 등 8개 계열별로 算定하되, 학생 증가에 따라 기준면적의 증가가 체감토록 조정되었다.

체육장도 학생 정원 1천명에 13,200 m²(4천평)을 최저로 하고, 정원 초과 1인에 대해 1~3명을 추가토록 하였으나 체육계 학과가 있는 대학만 19,800 m²(6천평) 이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학생 정원의 초과에 따른 추가 의무를 없었다. 개정된 신기준 명수에서는 학과별 부속시설이나 대학 공통사용시설의 기준 면적도 철폐하고 그같은 시설의 종류만을 밝혔고 규모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여덟째, 대학의 시설계획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教育施設에 관한 관계 교육문헌을 연구·검토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교육행정 영역에서 교육시설 분야가 학교경영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未開拓分野로 남아 있다. 전체 인구의 4분지 1을 훨씬 상회하는 1천1백여만 명을 수용하는 학교건축이 건축계의 중요한 전문영역인데도 이에 관한 연구 역시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런 단계에서는 선진국에서 연구 개발해 놓은 관계 문헌을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을 계획하는 데 참고로 하고 많은 시사를 얻어야



〈圖 1〉 교육계획과 시설계획 및 투자의 관계

할 것이다.

Ⅲ. 施設投資의 實際

아무리 훌륭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시설을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계획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投資, 즉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연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教育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영위되는 모든 교육활동이나 학교 경영은 교육계획과 시설계획 및 투자의 三者가 일치되어야 비로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들 三者는 〈圖 1〉과 같이 교육활동을 이룩하는 正三角形의 세 변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고등교육비 가운데 施設費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80년도에서 '83년도에 이르기까지 국립대학의 교육비 구성을 보면 〈表 2〉와 같다. '80년부터 '83년까지 4년간 인건비가 43.1%, 운영비가 20.5%, 시설비가 36.4%이다. 시설비가 국립대학 교육비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및 시설비가 相補的 關係에 있지만 財政配分에 있어서는 相反되는 관계에 있다. 어느 하나에 한정된 재원을 중점적으로 지출한다면 나머지 둘에는 그만큼 작게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高等教育의 構成費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미비하고 낙후된 시설 확충과 정비 면에서는 고무적이라 생각되나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등교육비

〈表 2〉 국립대학 교육비 구성

(단위 : 천원, () 안 수자는 %)

연 도	학 교 별	합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시 설 비
'80	전 문 대	13,106,842 (100)	5,768,114 (44.0)	2,694,965 (20.6)	4,643,763 (34.4)
	교 대	8,417,565 (100)	5,031,211 (59.8)	2,242,269 (26.6)	1,144,085 (13.6)
	대 학(교)	98,489,351 (100)	34,528,589 (35.1)	16,539,576 (16.8)	47,421,186 (48.1)
'81	전 문 대	20,122,709 (100)	7,707,959 (38.3)	3,929,033 (19.5)	8,485,717 (42.2)
	교 대	10,262,610 (100)	6,044,196 (58.9)	2,466,186 (24.0)	1,752,228 (17.1)
	대 학(교)	118,731,297 (100)	49,214,834 (41.4)	21,952,846 (18.5)	47,563,617 (40.1)
'82	전 문 대	28,584,716 (100)	10,440,089 (36.6)	5,873,247 (21.5)	12,271,380 (42.9)
	교 대	17,623,992 (100)	6,991,434 (39.7)	3,803,292 (21.6)	6,829,266 (38.7)
	대 학(교)	173,634,883 (100)	68,066,790 (39.2)	30,315,731 (17.5)	75,252,362 (43.3)
'83	전 문 대	28,078,999 (100)	12,357,800 (44.0)	6,199,375 (22.1)	9,522,324 (33.9)
	교 대	23,144,531 (100)	8,783,948 (37.9)	4,271,250 (18.5)	10,089,333 (43.6)
	대 학(교)	190,488,121 (100)	82,081,235 (43.0)	35,152,298 (18.5)	73,254,588 (38.5)
평 균 비 율		(100)	(43.1)	(20.5)	(36.4)

〈자 료〉 문교통계연보('80,'81,'82,'83년도)

의 適正配分에 관한 韓國的 模型의 研究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전문대, 교대, 대학(교)별에 따른 특정 연도의 특징이 있으나,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시설비도 대체로 비례하여 증가 추세에 있음을 〈表 3〉을 보면 알 수 있다.

私立大學의 경우 대학경영의 장기계획(사업)으로 교육시설 확대가 56.9%로서 교육의 내실화(19.8%)나 체제 개혁(19.8%)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²⁾ 그러나 표방하는 계획대로는 실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私學財政은 일반적으로 公開를 禁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 보고서에 의하면 私立綜合大學의 인건비가 44.6%, 운영비가 9.1%, 학생

경비가 21.4%이며, 시설비는 24.9%로서 國立綜合大學의 각각 32.8%, 15.9%, 9.5%, 41.8%와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국립보다 높으나 운영비와 시설비의 비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³⁾

學校法人의 學校經營財產基準令(1981. 3. 18, 大統領令 제10758호)에 의하면 100분의 80 이상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에 해당하는 額을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연간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의 수입중 설립자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轉入金은 종합대학이 겨우 7.5%, 단과대학이 14.4%로서, 평균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학생의 납입금 의존도가 종합대학이 81.9%, 단과대학이 77.5%로서 사립대학

〈表 3〉 국립대학 학생수 및 시설비 증가 추세

(단위 : 학생수(명), 시설비(천원), ()안은 %)

구 분 \ 연 도		'80	'81	'82	'83
전 문 대	학생수	19,752(100)	23,319(118)	27,023(137)	27,358(138)
	시설비	4,643,763(100)	8,485,717(182)	12,271,380(264)	9,522,324(205)
교 대	학생수	9,425(100)	10,324(109)	11,205(119)	12,004(127)
	시설비	1,144,085(100)	1,752,228(153)	6,829,266(597)	1,008,933(88)
대학(교)	학생수	112,502(100)	143,370(127)	175,107(156)	202,462(180)
	시설비	47,421,186(100)	47,563,617(100)	75,252,362(159)	73,254,588(154)
총 계	학생수	141,679(100)	177,013(125)	213,335(150)	241,824(171)
	시설비	53,209,034(100)	57,801,562(109)	94,353,008(177)	83,785,845(157)

〈자 료〉 : 문교부 교육시설국, 업무현황(1984.8) 및 문제동제연보(1980,81,82,83)

〈表 4〉 교육차관 대학별 투자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별	설립별	국·공립	사 립	계
	전 문 대		27,083	17,324
대학(교)		188,293	117,045	305,338
계		215,376	134,369	349,745

〈자 료〉 : 문교부 시설국, 업무현황.

('79), OECF('80, '81), ADB('78), ECGD('82) 차관에 이르기까지 총 4억 6천 257만 5천 불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 가운데 대학의 機資材購買에 투자된 비용은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공립대학에 2억 1천 537만 6천 불, 사립대학에 1억 3천 436만 9천 불, 총 3억 4천 974만 5천 불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외국 차관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있으나 앞으로 '85년부터 '87년까지 韓日經濟協力借款事業으로 內資 3천 9백만 불, 外資 2억 불이 학교의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는 質高나 特殊學校, 교육방송시설 확충에도 투자가 될 것이나, 대부분이 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투자될 전망이다. 外國借款은 그 條件이 까다롭고, 특히 据置期間과 元利金の 償還 期間이 점차 短期化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은, 급격히 증대하는 시설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다.

IV. 結 論

앞으로의 대학시설은 본교에서 제시한 제반 원리와 기준에 합당하도록 계획되고 그 계획을 뒷받침할 투자 재원의 확보가 커다란 문제이다. 이제 결론 삼아 行政의 側面에서 施設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課題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근대적인 大學經營方式을 탈피하고

제정의 大宗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한때 私學이 수용시설을 감안치 않고 무작정 정원을 늘리려고 소위 人氣學科의 증설에 급급하였던 폐단이 늘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요는 학생을 위해 시설투자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를 위해 학생을 증원하는, 말하자면 目的과 手段을 轉置하는 현상을 자행하여 빈축을 샀던 것이다.

대학의 施設投資는 校地나 외곽시설(건물)뿐만 아니라 內部施設(설비, 機資材) 投資도 있다. 앞으로의 시설투자는 보다 더 後者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校地와 외곽시설의 확보율에 비해 내부의 시설 특히 실험실습 설비와 기자재의 확보율이 훨씬 뒤쳐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자연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해양계, 사범계, 체육계, 의·치·약학계, 부속병원 기타 부설 연구소의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외국借款을 도입하여 투자하여 왔다. 물론 이 教育借款事業에는 實業系 고교의 기자재 확충과 用役 및 훈련분야에도 투자되기도 하지만 1969년 IDA 차관을 비롯하여 IBRD(1973,75,80,84), EXIM

시설의 계획에서 시공, 활용 및 관리에 이르기 까지 각 단계별 모든 局面과 過程에 관한 합리적인 科學的인 經營方式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

둘째, 기존 시설의 노후화, 고등교육 취학률의 계속적 증가, 새로운 학문의 발달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 學習社會의 到來로 인한 학교시설의 開放 등 제 요인으로 量的인 面에서나 質的인 面에서나 대학시설을 계속 보완, 확장해야 되고 이를 실현시킬 財源을 適時的으로 확보하여 投資해야 한다.

셋째, 대학시설을 포함한 學校教育施設을 계

속적이며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評價하기 위해 이에 관련된 이론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

<註>

- 1) 南廷杰, 教育施設計劃에 관한 分析的 研究(1970년도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 2) 裴鍾根, 教育革新을 위한 私立大學經營診斷(研究報告書, 1983).
- 3)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3學年度 大學財政·經營評價報告(1983. 12), p.37.
- 4) 상계서, p.31.